

## "한국 사회가 이젠 내부의 세계화 이뤄 나갈때"

(조선일보 2001.03.29)

"한국 사회가 이젠 내부의 세계화 이뤄 나갈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8 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영주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는 화교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 여명이 몰려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성화교협회 유국홍 회장은 “화교 가정의 달력에는 비자 갱신 날짜가 빨강게 표시돼 있다”며 “이들은 법적 절차를 다시 밟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때 함께 독립 투쟁을 하고, 6·25 전쟁 때는 총을 들었던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하나조노 대학 강재언 교수는 “화교 등 한국내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차별정책 철폐를 운운할 염치가 있느냐”며 “최근 한국이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해 차이나타운을 구상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영주권, 취직, 교육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데이비드 리차드슨 의장은 “한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장기 체류를 위해 경제·사회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안영도 변호사는 “영주권 제도는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와 함께 ‘내면의 세계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라며 “화교들이 5 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F2 비자 대신 영주권을 주는 제도

마련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

<http://www.chosun.com/svc/news/www/viewArticle.html?id=200103290003>